



우리당 비상총회 대국민 호소

읍소작전 표심 얼마나 움직일까

열린우리당은 25일 오전 국회의원·주요 당직자 비상 총회를 갖고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싸늘이를 막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민주당 등 야당은 선거 패배를 의식한 가식적 행동이라며 일제히 여당을 비난했다. 박근혜 피습 사건 이후 필패 국면으로 굳어져 가는 선거 판세가 여당의 읍소작전으로 얼마나 움직일 지 주목된다.

정동영 의장은 이날 비상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당은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한나라당이 싸늘이 할 전방이며 거대 야당이 전국을 장악하는 국면이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는 단지 민주평화세력의 위기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심대한 위기”라면서 “지방자치 11년 역사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장은 또한 “이번 선거에서 평화민주개혁 세력이 와해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싸늘이를 막아달라는 호소를 간절히 올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호소문에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46개 광역·기초단체장 가운데 열린우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20여 곳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2천300만명의 인구가 몰린 수도권 단체장 70명 가운데 한나라당이 67~68세를 싸늘이하고 우리당은 단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도 사실상 한나라당이 싸늘이 할 전방”이라는 진단이 담겨있었다.

또한 호소문에는 “열린우리당은 지금이 순간부터 백지 상태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다짐하는 한편 “그러나 우리당이 모자라다고 검증된 일꾼들을 외

“통렬히 반성...싸늘이만은 막아달라”
野 “구결정치...가식적 눈물 거뒀라”

면하지는 말아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소집된 비상 총회에서는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했다”, “여당으로서의 너털함이 없었다”, “관용을 베풀 모르는 정당”이라는 등의 뼈아픈 자기 진단이 이어졌다.

정동영 의장이 제기한 정계개편론에 대해 의원들은 “할 말은 많은데 선거 끝나고 이야기 하자”, “지금은 처절하게 깨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 외에 없다”, “따로 발언

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며 가급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었다.

한편 여당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가식적’ 눈물이라는 비난과 진정성 반성의 눈물을 통해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읍소작전으로 배수진을 친 모양”이라면서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풀리기에

는 늦었으며 5월 31일은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국민 불기의 날이자 무능정권 교체를 위한 출정의 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싸워보기도 전에 한나라당의 압승을 마이므로 떠돌고 다니는 집권당 의장은 한나라당의 선전부장이 아니냐고 묻고 싶다”면서 “모든 문제는 우리당 해체선언을 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나온다”고 야에 열린우리당의 해체를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과반을 훌쩍 넘겼던 절대 다수당이 강동을 들고 본격적인 구결에 나섰다”면서 “선거가 6일이나 남았는데 패배를 선언한 정당에는 동정할 여유도 없다”고 꼬집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열린우리당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25일 오전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6명이 시민들을 향해 고개 숙이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양형일·정동채·김동철·강기정·김태홍·지병문의원.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우리당 광주서도 큰 절

국회의원 6명 시내 곳곳서 읍소 유세

열린우리당이 비상총회를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25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6명은 이날부터 광주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절을 하며 ‘읍소작전’에 들어갔다.

정동채·김태홍·양형일·지병문·김동철·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광주시 동구 옛전남도청 앞에서 “한나라당 싸늘이를 광주가 막아주십시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의원별로 2~5분씩 교대 유세를 한 후 열린우리당의 반성과 사과의 뜻으로 함께 절을 했다.

이들은 26일에는 남구 백운광장 앞, 27일 광산구 흑석사거리, 28일 동구 문빈정

사 앞, 29일 서구 신화대 사거리, 30일 북구 서방사거리 등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광주 국회의원들이 읍소작전에 나선 것은 여당이 전라지역으로 보고 있는 광주지역의 선거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 비상 수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

중앙당이 광주를 집중 공략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아직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열린우리당 측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읍소작전은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광주가 여당을 지켜줄 것이라는 나름대로 기대도 들어있다.

정동채 의원은 이날 “많은 시민들이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선거공보물이 가정에 도착하

는 주말개부터 열린우리당 후보 지지도가 올라가 었바듯 지고 이후부터는 역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도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유권자가 40%를 상회한다”며 “상황이 바뀔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 측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열린우리당이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패배를 자인하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읍소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광주시민은 개혁세력을 위장한 열린우리당의 실정과 무능, 독선에 대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흥업소 ‘바지 사장’ 500만원 받아 지인들 찾아다니며 생활비 얻어 써

베일 벗는 테러범 池씨 돈줄

박근혜 대표 테러범 지중호(50)씨가 유흥업소에 명의를 빌려주고 500만원을 받은 사실 등 돈거래 내역이 속속 밝혀지면서 자금원에 대한 의혹이 대부분 해소되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지씨가 매달 수십만원 어치의 휴대전화 통화료를 내고 신용카드를 합달 평균 100여만원씩 사용했다고 알려지면서 “누군가 뒷돈을 대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지씨 주변 사람들의 말과 검증 합동수사본부의 지금까지 수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씨는 자금사정이 여유롭기는 커녕 여기저기 손을 벌리며 궁핍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몇천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수시로 얻어 썼고 친구 정모씨의 집에 얹혀 지내면서 또 다른 친구 최모씨가 밥을 사주고 용돈을 주는 등 생활을 책임지다 시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지씨가 2월 중순 경기도 수원에서 유흥주점의 명의사장(속칭 바지사장)직을 맡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돈이면 지씨가 작년 11월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합수부는 또 지씨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2대, 은행 계좌 2개를 추가로 개설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위해 지씨는 신용정보조회 사이트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자신의 대출 현황 등을 살펴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지씨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지금까지 700여만원을 사용했는데 실제 사용금액은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깡’, ‘상품권깡’을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카드깡’과 ‘상품권깡’은 신용카드로 각각 허위 매출전표를 끊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할인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떼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돈이 없는 지씨에게는 현금을 마련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였다.

합수부는 지씨 명의로 된 계좌를 5개 이상 찾아 냈지만 실제 사용한 것은 2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정부의 생활 보조금과 갱생보호공단의 취업알선 후원금 등이 입금됐을 뿐 통치돈과 같은 수상한 거래내역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의 경우도 지씨가 “DMB폰은 할부로 사주고 용돈을 주는 등 생활을 책임지다 시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지씨가 2월 중순 경기도 수원에서 유흥주점의 명의사장(속칭 바지사장)직을 맡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돈이면 지씨가 작년 11월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합수부는 또 지씨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2대, 은행 계좌 2개를 추가로 개설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을 밝혀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활동 마무리할 때” “언론에 이용 당해”

노혜경 대표 ‘성형수술 발언’ 파문 ‘노사모’ 해체 논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혜경 대표의 박근혜 대표 ‘성형수술 발언’ 파문이 노사모 해체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노 대표는 지난 23일 노사모 홈페이지에 자신이 올린 박 대표 피습사건 관련 글들을 자신 삭제하면서 서둘러 사태 진화에 나섰다. 노사모 초대 대표였던 김영부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노사모는 이제 역사로 남고 활동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해체 논란에 불을 댕긴 것.

노사모 홈페이지에는 25일 노사모 해체와 정체성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한 회원(‘눈썹’)은 “노사모는 해체됐어야 할 계류”란 제목의 글에서 “지금이라도 노사모는 해체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

상이 도래하는데 인과관계 역할을 하고 있는 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비토세력’)은 “노혜경 대표의 성형 발언은 글 전체를 놓고 볼 때 일부뿐이며, 정동영 의장의 ‘노인혐하’ 발언처럼 (언론에) 활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을 두고 (노사모가) 과격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국민과 멀어진 예나 되는 듯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오히려 김영부 고문이 노사모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노사모가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과격하게 배척하고 있다”는 지적은 일면 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의 일단의 문제이지 노사모의 특징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해체와 존치를 주장한 이 글들에는 찬반의견을 표시하는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어 내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상쾌한 아침 편안한 잠

폭신폭신한 “수맥돌침대”

몸이 찌뿌둥 할 때! 미국 F.D.A승인.

김수환 추기경님 감사세 받들

“수맥돌침대”를 사용하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수맥돌침대의 효능을 체감하신 김 추기경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수맥돌침대의 효능을 체감하신 김 추기경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상

연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수석으로 수업을 이수하신 박정호 박사를 축하드립니다. 수맥돌침대의 효능을 체감하신 박 박사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최고브랜드 대상

연세대학교 최고브랜드 대상에서 수석으로 수업을 이수하신 박정호 박사를 축하드립니다. 수맥돌침대의 효능을 체감하신 박 박사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수맥돌침대

미국 F.D.A 승인

수맥돌침대는 미국 F.D.A 승인된 의료기기입니다. 수맥돌침대의 효능을 체감하신 김 추기경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온나노 특허 “수맥돌침대” 특허기구 친한길 제품

4년 연속 최우수기업 선정

수맥돌침대는 4년 연속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맥돌침대의 효능을 체감하신 김 추기경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계 대회 5차례 금메달 수상

수맥돌침대는 세계 대회 5차례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수맥돌침대의 효능을 체감하신 김 추기경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